원희룡 장관, "지역 강점 살린 산단으로 대구·경북에 경제활력을"

- 26일 대구·안동 찾아 대경권 발전을 위한 기업 하기 좋은 산단 조성 약속 -

□ **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**은 **6월 26일** 대구와 안동을 찾아 **대구·경북**에 새로 선정한 **국가산단**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**빠르고 내실 있게 조성**할 것을 **약속**하였다.

□ **원 장관**은 **이날 오전 10시** 대구광역시청에서 **대구광역시**, **한국토지주택공사(LH)**, **대구도시개발공사**와 '**대구 스마트기술 국가산단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**'을 체결하고 산단조성을 위해 **원팀**(One-team)**으로 협력**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.

○ 앞서 **지난 3월 20일** 국토교통부와 대구광역시는 **스마트기술 국가산단 성공조성을 위한 현안회의**를 가지고 **신속한 산단 조성**과 충분한 규모의 **신공항 조성**, **연계교통망 적기 구축**에 뜻을 모은 바 있다.

□ 협약식에서 **원 장관**은 "**지난 3월 대구 국가산단**을 선정한 이래 **지난 5월**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와 대구도시공사를 **시행자**로 **지정**하고, **오늘 이 자리**에서 2차 전지 및 자동차 부품 **앵커기업**(선도기업)**과 투자협약**을 맺는 등 소기의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한다"면서,

○ "앞으로도 **기업, 지자체와 함께 대구 국가산단**을 실속 있게 조성하고, **도심융합특구** 등 성장거점, **대구경북통합신공항** 등 교통인프라도 차질 없이 구축하여 **대구 도약의 기반**을 **든든히 지원**하겠다"라고 밝혔다.

□ 이후 **원 장관**은 **오후 2시**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 **이철우 경상북도지사**, **주낙영 경주시장**, **권기창 안동시장**, **손병복 울진군수**와 함께 현안회의를 가졌으며, **경주·안동·울진**에 조성될 **신규 국가산단**의 성공조성과 경북의 활력 제고를 위한 **국토교통 현안과제**를 논의하였다.

○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는 경주, 안동, 울진의 **신규 국가산단**을 지역이 **스스로의 강점**을 살려 발전하는 **기회의 공간**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.

- **경주 SMR 국가산단**은 **한국수력원자력**, **문무대왕과학연구소** 등과 연계하여 소형모듈원자로(SMR) 등 **차세대 원전 기술**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기반으로 육성될 예정이다.

- **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**은 안동에 터를 잡은 **백신 선도기업**들이 투자를 이어나가고, **산업용 대마(HEMP) 의약품**을 개발과 생산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된다.

- **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**은 **원자력발전소**에서 생산되는 열과 에너지를 활용하여 **탄소배출 없는 수소**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**청정에너지 생산기지**로 육성된다.

○ 회의 이후, **국토부**, **경상북도**, **경주시**, **안동시**, **울진군**과 사업시행자인 **한국토지주택공사(LH)**, **경북개발공사**가 '**경북 국가산단 성공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**'을 체결하고 산단조성 절차 신속 추진, 기업 투자수요 확보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.

□ 현안회의에서 **원 장관**은 "**대통령**께서는 **사업을 전속력으로 추진**하여 이번 정부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, **정부와 지자체가 원팀**으로 협력하여 **내실 있는 기업을 유치**할 것을 지시하셨다" 면서,

○ "이번에 선정된 **경북 국가산단 3곳**이 경북의 새로운 도약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**지자체** 및 시행자인 LH, **경북개발공사**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"라고 밝혔다.

○ 아울러 "**신공항**을 **충분한 규모**로 조성하고, **공항으로의 접근성**을 높이는 **광역철도**, **진입도로**도 촘촘히 구축해 **경북의 바이오**, **원자력 첨단기업**들이 **세계를 무대**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"라고 밝혔다.

2023. 6. 26.
국토교통부 대변인